

溪堂과 閩山の 漢詩 創作傾向

황 위 주*

차례

1. 머리말
2. 계당의 한시 창작 경향
3. 민산의 한시 창작 경향
4. 마무리

【국문초록】

柳疇陸과 柳道洙는 모두 풍산유씨 가문의 일원으로, 두 집안이 가장 번창하던 시절의 대표적 인물일 뿐만 아니라, 19세기 중엽 영남 지역 지식인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실제 한시를 창작함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드러내보였다. 유주목은 평생 재야 학자로만 생활하였다. 그래서 가장 큰 관심사가 講學과 저술 활동이었고, 그 다음은 생활에 필요한 문장의 작성이었으며, 한시는 그가 남긴 전체 저작 가운데 지극히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유주목의 한시 창작은 조선후기 영남지역 학자들의 일반적 창작 경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반면 유도수는 유주목과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전체 저작 가운데 한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가 지은 한시의 절반 이상이 連作詩일 정도로 시에 탁월한 재능을 보여주었다. 특히 그가 56세 때부터 약 10여 년에 걸쳐 유배생활을 하고나서는 완고한 학자적 삶보다 오히려 진솔한 시인의 삶을 지향함으로써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주목할 만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은 유도수의 한시 창작은 영남 지역 지식인들의 일반적 창작 경향을 벗어난 것으로, 19세

* 경북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wzhwang@mail.knu.ac.kr

기 중엽 영남지역사회의 한시 창작 실상을 새롭게 파악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주제어

柳嘯睦, 柳道洙, 嶺南地域, 漢詩, 창작경향, 19세기

1. 머리말

溪堂 柳嘯睦은 순조 13년(1813) 경상북도 상주에서 태어나 고종 9년(1872)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주로 경상도 중·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영남지역의 대표적 학자 중 한 사람이다. 그는 西厓 柳成龍의 아들 중 상주 땅에 처음 정착한 修巖 柳彬의 후손이고, 직·간접적으로 그 학통을 계승한 江臯 柳壽春의 손자이며, 좌의정을 지낸 洛坡 柳厚祚의 아들이기도 한데, 풍산 유씨 愚川派는 江臯 洛坡 溪堂 세 사람이 활동한 이 시기에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영남지역 지성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閩山 柳道洙는 순조 20년(1820) 경상북도 의성에서 태어나 고종 26년(1889)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역시 경상도 중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그는 謙庵 柳雲龍의 후손으로, 증조부 屏村 柳泰春이 하회에서 沙村으로 옮겨 삶에 따라 이곳에서 생활하였는데, 어린 시절에는 조부 迺溪 柳崧祚의 가학을 전수받았지만, 나중에는 柳嘯睦의 문하에 입문하여 상주 지역 愚川派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대원군의 환궁과 관련한 상소의 疏首가 되는 등 지역 사회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유주목과 유도수는 모두 풍산유씨 가문의 일원으로 두 집안이 가장 번창하던 시절의 대표적 인물일 뿐만 아니라, 그 선대부터 상주와 의성 지역에 구축해 놓은 인적 물적 자산을 바탕으로 19세기 중엽 영남지역의 여론을 주도

하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각각 『溪堂先生文集』 16권, 『關山文集』 8권, 『關山遺稿續集』 6권 등 15권 내외의 문집을 남겼고, 『全禮類輯』, 『朝野約全』, 『相鑑博議』, 『北遷芹曝錄』 등 방대한 규모의 저술을 함으로써 학술적으로도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아직 이 두 사람을 본격적으로 조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남긴 문집과 저술을 널리 간행하여 보급한 것이 오래되지 않아서 미처 검토할 겨를이 없기도 하였고,¹⁾ 또 영남 유림들의 보수적 성향에 대한 학계의 부정적 선입견이 일부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본고는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우선 이들이 남긴 글 가운데 한시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래서 두 사람의 개별적 한시 창작 경향을 일차적으로 해명하는 한편, 나아가 이를 통해 19세기 영남지역 지식인들의 작품 창작 실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다소나마 기여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2. 계당의 한시 창작 경향

溪堂 柳疇睦은 어린 시절부터 조부 江臯 柳尋春의 훈도를 받으면서 자랐다.²⁾ 그래서 조부의 학문과 인품에 대하여 남다른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고,

-
- 1) 『溪堂集』은 1928년 처음 목판으로 100질을 인출하였지만 집안 사정으로 제대로 반질하지 못하였고, 1984년 문집과 각종 저술을 합쳐 『溪堂全書』(아세아문화사)를 발간함으로써 비로소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關山集』역시 손자 柳哲佑 당시에 7권 3책만 간행하였는데, 1996년 속집과 저술을 두루 모아 발간함으로써 비로소 학계에 그 진모가 알려지게 되었다.
 - 2) 그가 조부 柳尋春의 훈도를 받은 사실은 柳道洙가 지은 行狀(『溪堂先生文集』附錄, 권1)에 기록된 “日薰炙乎江臯先生之庭 得聞大方 家庭之間 其傳受旨訣 已有端的淵源” “先生之學 親受旨訣於江臯先生之承襲乎文忠先生之的傳陶山則淵源之有所徵”, 李學洙가 지은 行狀(『溪堂先生文集』附錄, 권1)에 기록된 “早受王先考先生之教” 같은 표현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조부로부터 물려받은 학문적 연원, 즉 退溪 李滉으로부터 西厓 柳成龍—愚伏 鄭經世—修巖 柳軫—立齋 鄭宗魯—江臯 柳尋春으로 이어지는 학문적 전통에 대하여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계승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하였다.³⁾

行狀에 기록된 사실에 따르면, 그는 나이 15~16세경에 이미 經史子集에 두루 통달하였고, 文章軌範 歷代沿革 姓譜來歷 등에 해박한 지식을 축적하였으며, 이런 것들을 글로 지어내는 솜씨가 대단하여, 조부조차 그 史才를 인정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의 초기 공부가 博學과 作文에 기초하였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그러다가 조부 柳尋春이 이를 경계하여 “泛博한 공부는 무익하니 眞實切近한 공부를 하라”고 하여 이때부터 爲己之學에 힘썼다고 하는데,⁴⁾ 이를 통해 16세 이후부터는 할아버지의 충고에 따라 공부 방법 상 박학을 지양하고 실천과 수양의 단계로 나아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약 6년이 지난 순조 34년(1834) 조부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학문적 歸依處를 상실하였다. 그래서 四勿과 敬齋의 後箴을 지어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계속하였지만,⁵⁾ 다른 한편 과거에 응시하여 정치적 포부를 실천하려고도 하였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여의치가 못하였다. 헌종 1년(1835) 漢城試에 합격하였지만 그 이상 결과가 없었고, 헌종 9년(1843) 會試를 보러갔지만 부정행위를 비판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며,⁶⁾ 2년 뒤 다시 鄉試에 응시하였으나 시험의 폐단을 절감하고는 완전히 포기해 버렸다.⁷⁾ 그의

3) 그가 조부 江臯 柳尋春에 대하여 가진 존경심의 실체와 학문의 연원관계에 대한 사실은 그가 지은 『王考江臯府君家狀』(『溪堂先生文集』권16)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4) 『溪堂先生文集』, 附錄, 권1, 行狀(柳道洙), “年十五六 經史子集 無不淹貫曉解 至論文章 軌範 歷代沿革 姓譜來歷 如撥火爲文 力量宏闊 問架嚴密 江臯先生 許其史才 而因警誨之曰 須從眞實切近用工 徒泛博無益 自是知有爲己之學而求之 就聖賢書 益講明體履”

5) 『溪堂先生文集』 附錄, 권1, 行狀(柳道洙), “先生痛失依歸 益體當日付卑之遺意 慥慥不已 乃作四勿敬齋後箴以自警省”

6) 『溪堂先生文集』, 附錄, 권1, 行狀(李學洙), “癸卯 赴會試 鄉人之與主官相知者 要公通言路 公却之曰 貢舉立身伊始 士君子 豈有以誣上爲干進階耶 其人喞而沮之 竟屈焉”

나이 33세 때의 일이다.

이후 그는 柴里 옛 집 동쪽에 집을 짓고, 朱子 시의 “편안한 나의 산중 생활(居然我泉石)⁸⁾이란 구절을 따서 居然齋라 이름 하였으며, 그 속에서 학문에 침잠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신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한편, 독서와 저작 활동에 몰두하여 『溪堂先生文集』 16권에 수록된 대부분의 글을 비롯하여 『四七論辨』, 『全禮類輯』, 『朝野約全』, 『海東姓譜』 등 엄청난 양의 저술을 하였던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축적해 온 博學과 作文 능력 및 史才를 유감없이 발휘한 셈이다.

유주목의 삶은 이처럼 전형적인 처사형 학자의 삶이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시간을 제자들과 강학하고 저술을 하는데 쏟아 부었고, 나머지 시간도 대부분 선후배 학자들과 서한을 주고받으며 道學과 禮說을 토론하는데 투입하였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혈연 학연 지연 상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의 知인들이 청탁하는 行狀 碑文 序 記 題跋 說 같은 문장을 지었는데, 이런 글쓰기 활동 가운데 시의 창작은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비중이 낮았다.

문 체	규 모	출 전	문 체	규 모	출 전
詩	22면	원집 권1	雜著	41면	원집 권11
文	疏	원집 권2	文	祭文	원집 권12
	書	원집 권3~7		碑碣	원집 권12~14
	序	원집 권8		行狀	원집 권14~16
	記	원집 권9	四七論辯	속집 권상	
	題跋	원집 권9~10	朝野約全	속집 권하	
	其他	원집 권10	全禮類輯	5656면	全書 중·하

〈표 1〉 溪堂의 著作 現況

7) 『溪堂先生文集』, 附錄, 권1, 行狀(李學洙), “乙巳 觀本州解 退而語同志曰 從前科舉之弊 不至如此 而先輩無不以壞人才爲嘆 況今日乎 吾其自此已矣 歸白相公 願從所好 相公許之 遂廢不舉”

8) 朱熹 『武夷精舍雜詠』 제1수 「精舍」의 마지막 구절. “琴書四十年 幾作山中客 一日茅棟成 居然我泉石”

위의 <표 1>은 『溪堂全書』에 수록된 글을 순서에 따라 대략 구분해서 정리해 본 것이다. 글 전체를 木板으로 계산해 보면 대략 7,197면 가량 된다. 이 가운데 『全禮類輯』이 5,656면으로 전체의 약 78%나 되고, 『四七論辨』과 『朝野約全』이 도합 896면으로 약 12%를 차지하였으며, 그의 대표작이라 할 만한 이 3종의 책이 그가 남긴 전체 글의 90% 이상을 점유하였다. 그리고 아직 미간행 초고로 남아 있는 『海東姓譜』40권과 조부 柳尋春의 유업을 계승하여 완성시킨 『東宮輔益』 2편이 더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가 가장 큰 공력을 들인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저술활동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⁹⁾

문집은 전체 분량이 16권으로 그 자체로는 다른 어떤 사람의 문집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규모 있는 책이라 할만하다. 그러나 그가 남긴 전체 저작에 있어서는 10%에 채 못 미치는 작은 부분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편지와 일반 문장에 크게 편중되어 있었다. 편지가 5권 212면으로 전체의 1/3가량을 차지하였고, 行狀이 3권 111면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碑碣이 2권 남짓한 분량으로 그 다음이었다. 나머지 疏序記題跋祭文雜著 등이 각각 1권 분량을 차지하였으며, 문집 제일 앞에 수록해 놓은 시는 겨우 1권 22면에 그쳤다. 그러니까 시는 문집에 수록한 글의 3%, 그가 남긴 전체 저술의 고작 0.3% 가량에 불과하였던 셈이다.

그의 저술 가운데 시의 비중이 이렇듯 작게 된 이유는 물론 그가 문학보다 학문을 중시하고 학문보다 실천을 더욱 중시하는 학자로서, 처음부터 시를 짓는데 특별히 애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는 사람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학문’과 ‘효의 실천’이라 하였고,¹⁰⁾ 사람이 이룩할

9) 『溪堂先生文集』, 附錄, 권1, 「行狀」 “又嬀氏族之學 著海東姓譜四十冊 皆在巾衍中 甲子當寧卽昨 設經筵 先生曰 昔王考府君 輔翼三朝 及退 集古今教習格言 著爲東宮輔翼 而篇未就 今宜整寫上備省覽 遂衍義 成二篇書 而未果上” 이 중 『海東姓譜』는 원문이 일부 결락된 27책이 집안에 남아있다고 한다(朴淳碩, 溪堂全書刊行後記). 그러나 『東宮輔翼』의 현존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가치가 있는 일은 '선비의 학문' '사직의 공로' '나라를 위한 죽음'이라 하여 학문과 실천행위를 대단히 강조하였다.¹¹⁾ 그리고 "제자의 직분은 실천하고 남은 힘이 있으면 글을 배움이니, 직분은 닦지 않고 글을 우선함은 爲己之學이 아니다"¹²⁾라고 하여 글보다 실천을 우선하였고, 실재 제자를 교육하는 방침을 설정하면서도 주자학의 실천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小學』은 유난히 강조하면서, 시는 아예 주요 교육 대상으로 거론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¹³⁾

그러나 시의 비중이 이렇게 낮아진 데는 그가 남긴 작품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데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듯하다. 이 점은 현재 문집에 수록하고 있는 시를 검토해 보면 바로 드러난다. 『溪堂先生文集』 시편 가운데는 창작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 여럿 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그가 48세 되던 1860년 이후에 지은 것이었다. 그리고 아래의 예문을 보면 그가 청장년시절에 많은 시를 지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 문집에 이를 제대로 수록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 ① 을미년(1835) 漢城試에 합격하고 會試 시기가 멀지 않아서 그대로 성균관에 머물렀다. 士友들과 함께 남한산성에 오르고, 삼전도 비석을 거쳐 갑곶 진으로 건너가며, 울분과 걱정을 시로 노래하고, 또 글을 지어 감회를 쏟아내었다.¹⁴⁾

10) 『溪堂先生文集』, 권8, 「平川世稿序」, “古人有言曰 先立乎其大者 此言非爲論人設 而要之論人者 亦當以是爲第一義也 蓋其所謂大者 在人之事爲學 在人之行爲孝”
 11) 『溪堂先生文集』, 권8, 「見山實記序」, “人於天壤間所樹立 大處其道三 一曰儒者之學 二曰社稷之功 三曰死國之烈 有一於此 不惟不失於令名 亦足以垂世範俗”
 12) 『溪堂先生文集』, 권8, 「殷溪遺集序」, “伊川先生曰 弟子之職 力有餘則學文 不修其職而先文 非爲己之學也 嗚呼 孝悌文學 只是一事 後人不識 將孝悌學文 別作兩件說了 以故非無孝悌之人 不能於問學上益 非無學文之人 不能於德性上益”
 13) 그가 제자를 교육한 방법과 내용은 「溪亭講會節目」(『溪堂先生文集續集』附錄 권1)에 자세하다. 그는 이 절목의 제1조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小學』의 가치를 거듭 강조한 반면 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하루 강의를 끝난 다음 저녁 여가 시간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거론하는 가운데 그 중 하나로 “문자 시구로서로 창수한다”(以文字詩句相唱酬)라고 간단하게 언급하였을 뿐이다.

- ② 정사년(1857) 강릉 부임지로 아버지를 뵈러 갔다. 여러 날이 지나서 외삼촌 李憲儒 공과 上舍 金邁銖 형과 함께 금강산으로 향하였는데, 혹 운자를 정하여 시를 서로 주고받고 하여 풍류가 돈독하고 후중하였다.¹⁵⁾
- ③ 선생은 고상한 山水癖이 있어서 지나는 곳에서 한 물과 돌을 만나면 예사로 보지 않고 시를 읊어 그 정취를 표현하였다. 옛집 柴里 북쪽은 산골짜기로 둘러싸여 지역이 조용하고 깊숙하였는데, 골짜기 옆 좌우에 꽃과 대나무를 심고 초가삼간을 짓고는 시를 읊어 말하기를 “……”라고 하였다.¹⁶⁾
- ④ 石山 金益容이 나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溪堂을 좇아 공부를 하는데, 그의 학문과 詩文을 알 수 있는가? 학문은 星湖에게 들은 듯하고 시는 菊圃에서 들은 듯하여, 참으로 근래 영남 학문의 수준을 벗어날 수 있었네” 하고, 잇따라 선생의 西行 시 한 구를 외우며 말하기를, “살구나무 아슬아슬 저녁 까마귀 깃드는데, 주인은 알지 못하고 집인 양 들어가네.”는 참으로 시인의 말씀씨이지 학자의 말이 아닐세”라고 하였다.¹⁷⁾

①은 그가 23세 때 會詩를 보기 위해 성균관에 머물 당시, 士友들과 함께 남한산성부터 삼전도를 거쳐 강화도 갑곶진까지 여행을 하고, 그곳에 얽힌 굴욕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울분과 걱정을 시로 노래하였다고 한 것이다. ②는 그가 45세 때 강릉 고을에 부임해 계신 아버지를 찾아갔다가 李憲儒 金邁銖와 함께 금강산 유람을 떠나 중도에 서로 많은 시를 주고받았다고 한 것이다. ③은 그가 산수를 좋아하여 물 한 줄기 돌 한 덩이도 예사롭게 보아

14) 『溪堂先生文集』, 附錄 권1, 「行狀」(柳道洙) “乙未 中漢城解 會期不遠 因留泮 與士友登南漢山城 歷三田碑 渡甲申津 憤激歌詩 又著書以瀉懷”

15) 『溪堂先生文集』, 附錄 권1, 「言行錄」(金相寅) “丁巳觀相公于江陵任所 既屢日 與內舅李公憲儒 表兄金上舍邁銖 將向楓嶽 或拈韻唱酬 風流篤厚”

16) 『溪堂先生文集』, 附錄 권1, 「行狀後」(安昌烈), “先生雅有山水之癖 所過如遇一水一石 不尋常看 吟詠以發其趣 舊居柴里之北 礪曲環抱 卽地幽深 臨礪左右 列植花竹 縛茆三間 有詩曰 此心那堪欲離群 祖墓爲齋夙所聞 谷中啼鳥忘機事 野外落花任合分”

17) 『溪堂先生文集』, 附錄 권1, 「行狀後」(安昌烈) “金石山益容對余言之曰…又曰 君從溪堂學其學與詩文 能知之耶 學似聞於星湖 詩似聞於菊圃 眞個脫略得近來嶺學 仍誦先生西行一句曰 杏樹欹危點暮雅 主人不識入如家 此眞詩家口氣 非學究家語”

넘기지 않고 시를 지어 그 정취를 읊었다고 하면서 관련 시 1수를 소개한 것이다. ④는 그가 학문은 星湖 李瀼에게서, 시는 菊圃 姜樸에게서 개발을 받아 영남의 수준을 벗어났다고 하면서 西行詩 일부를 소개하고 그것이 학자가 아닌 시인의 솜씨라고 칭송한 것이다.

이런 예문을 보면 그가 젊은 시절 학자이면서 동시에 시인다운 자질을 함께 갖추고 있었고, 산수 유람과 여행을 다닐 때마다 많은 작품을 지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집에는 남한산성 삼전도 강화도 금강산 등을 다니며 지었다는 작품을 한 편도 수록해 놓지 않았다. 그리고 위의 예문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작품조차 모두 누락시켰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그가 현재 문집에 들어 있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작품을 지었음이 분명하며, 전체 저작에서 시가 차지하는 비중도 좀 더 높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문집에서 누락시킨 작품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런 작품의 존재를 감안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있어서 시의 비중이 저술이나 문장의 비중을 능가할 정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는 여전히 시보다 문장을, 문장보다 학문과 저술 활동을 중시한 학자라고 하겠는데, 문학을 보는 관점도 예의 文以載道論을 견지함으로써 이런 유학자다운 태도를 보였다.

- ① “文은 道를 싣는 그릇이니 理가 文보다 우세하지 않으면 文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어휘를 구사하여 뜻을 전개함에 이치에 요긴하도록 힘썼다.¹⁸⁾
- ② 시는 性情의 발현이다. 그러므로 옛 사람은 충성과 분개 哀怨의 감회가 있으면 이를 시와 문장으로 지어내지 않는 이가 없었다.¹⁹⁾

18) 『溪堂先生文集』, 附錄 권1, 「行狀後」, “謂文以載道 理不勝文 不足以爲文 故措語命意務要理致”

19) 『溪堂先生文集』, 권8, 「南阜集序」, “詩者 出自性情也 故昔人有忠憤哀怨之懷 靡不發之聲詩如文”

- ③ 시와 문장이 차분하고 우아하며, 화려하거나 기이하고 편벽된 태도를 제거하였으니, 道理의 발현이 아닌 것이 없었다.²⁰⁾
- ④ 시를 지움에 조용히 自得하여 상하가 함께 흘러 제각각 자리를 얻는다는 뜻을 가지지 않은 것이 없었고, 문장을 지움에 理氣 性命의 본원으로 학자들의 핵심처가 되지 않는 것이 없었다.²¹⁾
- ⑤ 문장을 지움에 彫琢을 일삼지 않았고, 웅대하고 혼후하고 광활하게 넘실거렸으며, 조리가 달통하고 표현이 유창하였다.²²⁾
- ⑥ 문장을 지움에 깨끗하고 광대하여, 붓을 대어 글을 써내려감에 도도하여 다함이 없었고 드넓고 차분하여 성대한 일가의 체제를 이루었다.²³⁾

①, ②는 유주목이 직접 자신의 문학론을 피력한 것이고, ③, ④는 이를 근거로 다른 사람의 작품을 평가한 것이며, ⑤, ⑥은 역으로 다른 사람이 그의 문학적 성취 결과를 평가한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文은 道를 신는 그릇이니, 理가 文보다 우세하지 않으면 文이 될 수 없다”고 하여 文以載道論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 그리고 이런 문학론에 근거하여 ‘性情이 자연스럽게 발현된 시’, ‘道理가 드러나는 차분하고 우아한 시’, ‘형식적인 꾸밈의 화려함보다 내용상의 理致가 渾厚한 글’ 등을 바람직한 문학의 전형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자신의 작품 창작은 물론 타인의 작품 평가에도 두루 중요한 척도로 적용하였다.

그가 남긴 한시는 바로 이런 문학적 관점의 현실적 실천 결과였다. 그래서 그는 우선 한시 형식의 정상적 틀을 벗어난 실험적 잡체시나 장단구 같은 특이한 형태의 작품을 거의 짓지 않았다. 아래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0) 『溪堂先生文集』, 권8, 「南溪集序」, “詩若文 閒靖雅婉 絕去浮靡奇僻之態 蓋莫非道理之所發也”

21) 『溪堂先生文集』, 권8, 「唐谷先生實記序」, “其所以爲詩者 無非從容自得 有上下同流各得其所之意 其所以爲文者 無非理氣性命之原 爲學者肯綮之處”

22) 『溪堂先生文集』, 附錄 권1, 「行狀」(柳道洙), “爲文章 不事雕琢 雄渾滂沛 理達而辭暢”

23) 『溪堂先生文集』, 附錄 권1, 「行狀後」, “發爲文章 蒼勁浩博 下筆千言 滔滔不竭 汪洋靜邃 鬱然成一家體制”

럼 그는 문단에 널리 보편화된 일반적 칠언율시를 가장 즐겨 지었고(42제 44수), 그 다음으로는 오언율시(16제 16수)를 즐겨 지었는데, 이런 율시 형식이 전체 84제 93수 중 58제 60수로 2/3 이상을 차지하였다. 나머지도 대부분 칠언절구(12제 18수)와 오언절구(9제 10수) 등의 근체시였으며, 근체시 양식을 벗어난 시는 겨우 5수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형식별	7율	42제 44수	제 재 별	죽음 애도	16제 23수	감사 칭송	6제 6수
	5율	16제 16수		만남 이별	15제 16수	격려 경계	6제 6수
	7절	12제 18수		유람 여행	12제 12수	모임 놀이	4제 4수
	5절	9제 10수		부채 기념	7제 7수	독서 강학	3제 3수
	기타	5제 5수		축수 축하	6제 6수	기타 생활	9제 10수
전체 84제 93수			전체 84제 93수				

〈표 2〉 계당 한시의 형식·제제별 현황

제재에 있어서도 이런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과거시험의 부조리한 현장을 여러 차례 목도하면서 좌절의 아픔을 겪기도 하였고, 프랑스 군대의 강화도 침략 전쟁 소식을 듣고 의병장을 맡기까지 하였지만,²⁴⁾ 이런 데서 느낄 수 있는 격한 감정이나 울분 비애 등은 거의 시적 대상으로 포괄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사람의 학자로 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담담한 일상적 생활 체험이 중심적 창작 대상이었다. 知人の 죽음을 애도한 의례적인 挽詩를 가장 많이 지었고,²⁵⁾ 친지나 제자와 만나고 이별하는 감회를 읊은 시가 그 다음이었으며,²⁶⁾ 나머지도 대부분 자제나 제자에 대한 격려와 경계,²⁷⁾ 동학들과

24) 『溪堂先生文集』, 附錄, 권1, 「行狀」, “洋船進泊京江 國事危急 上下綸音甚哀痛 判事鄭公允愚 應旨行召募事 入府議義兵 以將望屬先生 先生方持制力辭 相公貽書曰 吾家受國厚恩 苟有絲毫報 則豈可以持制辭 先生曰 今賊兵逼近 君父在危城中 念 所處非餘人可比 親命既如是 且有先輩已行之例 遂會于洛津 而退處私次 約定將指日赴難矣 俄聞賊退 議遂寢”

25) 「挽耽齋安公」, 「挽朴丹瀛」, 「挽孫舜卿」, 「挽李進士季瀾」, 「挽李景禹」, 「挽李若軒」, 「挽張參判公武」, 「挽金松嶽」, 「挽洪上舍箕範」, 「挽鄭健叔」, 「挽崔進士」, 「挽李正言」, 「挽鄭判事」, 「挽制庵鄭公」, 「挽李進士又玄」, 「挽金司果」 등이 그런 작품이다.

여가를 즐기는 서정,²⁸⁾ 독서와 학문 탐색의 감흥,²⁹⁾ 과거 급제나 회갑 등의 축하,³⁰⁾ 상대의 배려에 대한 감사와 칭송³¹⁾ 등이 중심이었다. 그야말로 '性情이 자연스럽게 발현된 시', '道理가 드러나는 차분하고 우아한 시'를 지었던 것이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그가 평생 학문에 종사하고 또 방대한 저술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깨달음의 세계나 이론적 자각의 경지를 투영한 작품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물론 그의 시 가운데도 「讀啓蒙」처럼 이런 색깔이 드러나는 작품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작품이 추상적 이론의 세계보다 현실적 실천의 세계를, 특수한 깨달음의 경지보다 일상적 敎學의 삶 그 자체를 핵심 제재로 삼았다. 이것은 결국 그의 학문이 이론보다 실천을 강조하고 깊이보다 넓이에 치중하였음을 의미하는 듯한데, 이는 그가 성취한 학문적 성과와 연계시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
- 26) 「和別權四難兮七」, 「金羽玉辭歸書贈」, 「丁卯冬族叔公玉」, 「吟贈朴大受」, 「道州宿竹叟金瑀英家」, 「山中歲暮訪金河源」, 「次李君弼屏居寄來韻」, 「朴漢卿帶恩來訪喜甚」, 「和李戚兄季行」, 「七月既望喜金仲獻見訪」, 「和寄趙戚兄國卿」, 「李道源秋暮委訪書贈」, 「喜金渭瑞來見其歸」, 「釜山館逢姨叔李山清」, 「君弼委顧呼韻走草」 등이 그런 작품이다.
- 27) 「題慈仁東軒壁上」, 「次張子順克敬堂韻」, 「黃蛇重陽前一日宗孫」, 「韓甥告歸書贈」, 「贈韓孟讓歸家」 등이 그런 작품이다.
- 28) 「重陽後三日與諸益」, 「江院齋夜與諸益拈韻」, 「壬戌七月既望江行韻」, 「與諸益詠盆梅」 등이 그런 작품이다.
- 29) 「讀啓蒙」, 「次張致一伊坡幽居韻」, 「辛酉至月編次禮書」 등이 그런 작품이다.
- 30) 「次郭舜九孝處堂韻」, 「金學老以新恩至喜甚」, 「高穉器誦其大人生朝」, 「慶壽宴詩并序」, 「從弟占司馬以欄檣來」, 「喜族弟帶恩來訪書贈」 등이 그런 작품이다.
- 31) 「奉王考遺文就校於畜」, 「贈萊伯鄭伯純」, 「與諸益編禮因吟示」, 「戊申季冬赴會稽館主倅」, 「次安都事」 등이 그런 작품이다.

3. 민산의 한시 창작 경향

閩山 柳道洙는 순조 20년(1820) 의성군 짐곡면 沙村 台洞에서 柳進球와 金樂生의 딸 宣城金氏 사이에 태어났는데, 돌이 채 되지 않아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줄곧 할아버지 柳崧祚의 가르침을 받고 자랐고,³²⁾ 주자학의 이론 공부를 하다가 의문이 나는 것은 주로 이웃한 栗園 金養休 공을 찾아가서 질의하였으며,³³⁾ 나중에는 溪堂 柳疇睦의 문하에 입문하여 상주 쪽 학통을 계승하였다.

그가 유주목의 문하에 입문한 것은 대략 30대 초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그가 유주목의 「行狀」에서 “문하에 달려가 가르침을 받은 것이 이제 이미 20여 년이 되었다”³⁴⁾라고 한 데서 대강 짐작할 수 있다. 유주목이 세상을 떠난 것이 고종 9년(1872) 4월이고, 행장도 바로 이 해에 지었는데,³⁵⁾ 이 때 유도수의 나이가 53세였으니, 여기서부터 20여 년을 역산하며 대략 33세 전후가 되는 셈이다. 이때부터 유도수는 상주를 왕래하며 학문을 토론하기도 하고, 유주목의 『禮說類輯』 교정 작업 등을 돕기도 하였는데, 이런 내용이 그가 쓴 시 편지 행장 등에 잘 나타나 있다.³⁶⁾

32) 『閩山文集』, 권8, 附錄, 行狀(金道和), “未啐而先公歿—稍長 日侍王考側 應對惟謹”

33) 그는 「祭栗園金公文」(『閩山文集』, 권7)에서 김양휴에 대하여 “斂容端坐 似梅斯馥 開顏笑語 如花方郁 明窓斐几 日對經籍 優游涵養 沈潛玩索 退書朱節湖稿沙集 貫徹古今 尋求旨訣”이라 하여 그의 인품과 학식을 극찬하였고, 또 “幸以蒙駮 床拜頻獲 而不愚棄 獎勵深篤 賜以色辭 助以書牘 小子瞿瞿 奉斯銘刻”이라 하여 여러 차례 그의 가르침을 받고 특별히 유의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金道和도 그의 行狀에서 “嘗以疑義 就質於栗園金公 金公輒加勸獎 因以勿墜儒家事業勉之”라고 하여 이런 사실을 거듭 지적하였다. 김양휴는 유도수가 위의 제문에서 退溪書 朱書節要 大山集 川沙集 등에 특히 밝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退溪-鶴峯-葛庵-大山-川沙로 이어지는 안동 의성지역 퇴계학을 전수한 인물로 판단된다.

34) 溪堂先生文集, 附錄 권1, 「行狀」(柳道洙), “道洙 趨門屏而襲餘光者 已二十餘年于茲矣”

35) 『閩山文集』, 권8, 附錄, 行狀(金道和), “辛未(1871) 冬 納拜于溪堂 因留校禮輯 翼年 溪堂歿 公即撰次言行一通爲善狀 蒐輯遺文 成十二冊”

36) 「溪堂秋日賦卽事」(문집 권1)에서 “半歲重尋陪杖屨 一堂高會盛衣冠”이라고 한 구절, 「上

그는 柳疇陸의 학통을 계승하였던 만큼 기본적인 삶의 태도나 학문 성향 및 문학에 대한 생각 등에 있어서도 스승과 흡사한 면이 있었다. 젊은 시절 주자의 편지와 仁說 觀心說 程顥의 論性定性說 元亨利貞說 등을 손수 베껴 공부하였다는 주자학적 학문 성향이 그렇고, 『相鑑博議』를 저술하여 역사에 대한 재능(史才)를 발휘한 것이 그러하며, 과거시험에 대한 미련을 접고 闕山亭을 창건하여 재야 학자의 삶을 살고자 했던 것도 또 그러하다. 그리고 문학에 대하여 “덕행은 근본이고 문예는 말단이다”라고 하여 道本文末의 견해를 피력하고, “문장이 진실로 世教에 상관되지 않는다면 비록 공교로운들 무엇 하리오”라고 하여 다시 그 교화적 기능을 강조한 것³⁷⁾ 등 역시 유주목이 견지하였던 주자학적 文以載道論과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재 그가 남긴 글 내용을 검토해보면 그의 저작 활동이 유주목과 크게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저작의 전체 규모는 유주목의 1/10 정도에 불과하지만 시는 오히려 10배 이상 많았으며, 전체 저작 가운데 시가 다른 어떤 저술이나 문장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溪堂先生」(문집 권4)에서 “數宵承誨 此心開豁 便若披雲霧見青天”이라 한 구절이 그런 것이다. 이 외에도 그는 「溪堂感吟」, 「六月小晦夜夢拜先生於愚川舊第…」(문집 권1) 같은 시와 「輓溪堂先生」(문집 권2) 4수, 「祭溪堂先生文」(문집 권7) 같은 글을 지어 계당을 깎듯이 스승으로 받들면서 존경과 흠모의 정을 표현하였고, 마침내 계당의 「及門錄」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이름이 오르게 되었다.

37) 『闕山文集』, 권8, 附錄, 跋(柳尙榮), “先生嘗語人曰 德行本也 文藝末也 又曰 文章苟不關於世教 雖工奚爲 蓋深病世之徒尙文辭者 採其華而祛其實 務其末而遺其本也”

문 체	규 모	출 전	문 체	규 모	출 전
詩	詩1	85면 원집 권1~3	文	上樑	5면 원집 권6
	詩2	85면 속집 권1~3		祭文	29면 원집7 속집6
	書1	94면 원집 권4~6		碑碣	7면 원집7 속집6
	書2	68면 속집 권4~5	相鑑博議	63면 별집	
	序記	7면 원집 권6	北遷芹曝錄	72면 별집	
	其他	14면 원집6 속집6	疏廳日記	33면 별집	

〈표 3〉 閩山の 著作 現況

위의 〈표 3〉은 『閩山文集』에 수록된 글 가운데 다른 사람이 쓴 行狀이나 輓詩 등을 제외하고 그가 직접 저작한 것만 따로 구분해서 정리해 본 것이다. 민산의 저작은 시문과 저술을 합하여 대략 562면 가량 되었다. 이 가운데 시는 원집에 3권 속집에 3권 도합 6권 170면 정도였는데, 이것은 그의 전체 저작의 약 30%, 문집만으로 계산하자면 43%, 편지글을 제외하면 전체 문집의 73% 이상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저작 실상은 유주목은 물론 19세기 영남지역 학자들의 문집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특이한 점으로, 그가 다른 어떤 저술이나 문장보다 한시에 치중하였으며, 학자라기보다 오히려 시인에 가까울 정도로 시의 창작에 몰두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작품총수	연작시(203제661수)			
		만 시	잡영시	여행 등	기 타
문집1	57제 158수	21제 59수	4제 54수		7제 18수
문집2	124제 201수	21제 62수		1제 16수	17제 43수
문집3	92제 183수	24제 74수	1제 16수	1제 12수	11제 27수
속집1	89제 152수	12제 40수	2제 19수		14제 33수
속집2	145제 249수	28제 79수		1제 19수	22제 55수
속집3	107제 128수	4제 9수		1제 6수	10제 21수
전체	614제 1071수	112제 323수	7제 89수	4제 53수	81제 197수

〈표 4〉 권별 작품 총수와 연작시 현황

이와 같은 사정은 그가 수많은 연작시를 지었던 데서 거듭 확인할 수 있다. 위의 표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는 문집 6권에 약 1071수의 시를 남겼다. 그런데 이 중 60% 이상에 해당하는 661수가 모두 연작시였다. 예컨대 다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한 輓詩는 보통 한 사람 당 1수 가량 짓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그는 적어도 2~3수, 많게는 4~5수의 연작시로 지었고,³⁸⁾ 심지어 6수 혹은 7수의 연작으로 짓기도 했으며,³⁹⁾ 이런 작품이 만시 364수 중 약 90%에 해당하는 323수나 되었다. 그리고 선배 학자들이 학문적 터전 혹은 경관을 대상으로 지은 연작 雜詠詩를 여러 편 차운하여 짓기도 하고,⁴⁰⁾ 자신의 閩山亭을 대상으로 「閩山亭諸詠」 15수를 짓기도 했으며, 산천을 유람하거나 독서한 경험 등도 두루 연작시로 지었는데,⁴¹⁾ 이와 같은 대량의 연작시 창작을 통해 그가 시에 남다른 능력과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장편 고시와 詞를 지은 것도 이런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장편 고시는 다른 학자들의 문집에서도 더러 볼 수 있다. 그러나 작품 수가 많지 않고 또 길이가 긴 작품이 매우 드문 편이다. 그런데 유도수는 이런 작품을 13수나 지었고, 일부 작품은 길이가 100구 심지어 172구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였다.⁴²⁾ 특히 詞는 음악 가사의 일종으로 한자의 音律에 밝지 못한 우리나라

38) 5수 연작으로 지은 만시로는 「輓申巖齋」(문집2), 「輓華西族叔」(문집3), 「輓鄭致九」(문집3), 「輓權戚叔」(속집1) 등을 들 수 있다.

39) 고모부 琴書述의 죽음을 애도한 「輓素無軒琴姑叔」(속집2)은 칠언절구 6수의 연작시였고, 金梯裕의 죽음을 애도한 「輓金亨仲」(속집2)은 칠언절구 7수의 연작시였다.

40) 「敬次林居雜詠」 13수(문집1), 「伏次退陶先生山居四時」 16수(문집1), 「伏次西厓先生江齋十詠」 10수(문집1), 「次權極彥佛影寺十四景」 12수(문집3), 「次黃聖倫竹窩諸詠」 16수(문집3), 「敬次龍溪十詠韻奉呈…」 10수(속집1), 「謹次族叔竹林精舍韻」 9수(속집1) 등이 그런 작품이다.

41) 「七寶山諸詠」 17수(문집2)와 또 다른 「七寶山諸詠」 19수(속집2), 揚雄 嚴光 曹操 등 6명의 인물을 평한 「看史」 6수(속집3) 등이 그런 작품이다.

42) 「述懷次晦齋先生西征韻」 5언 172구(문집1), 「閩山得址後伏次老先生」 5언 46구(문집1), 「次趙和叔閉可齋韻」 5언 42구, 「輓族兄」 7언 70구(문집1), 「輓族叔仁直」 5언

사람으로서의 짓기가 매우 어려운 양식이었다. 그래서 조선시대 유명 문인들 가운데도 詞를 지은 작가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는데, 유도수는 바로 이런 詞를 巫山一段雲 鷓鴣天 菩薩蠻 南柯子 江神子 등 5종의 詞牌에 따라 9수나 창작하였다.⁴³⁾ 이 외에도 전체 작품이 6행으로 완성된 小律詩를 짓기도 하였고,⁴⁴⁾ 金石絲竹匏土草木 등 八음을 각 행의 머리글자로 활용하여 八音體란 특이한 잡체시를 짓기도 하였는데,⁴⁵⁾ 이런 다양한 작품의 실험은 그의 한시에 대한 관심이 예사 학자들의 수준 이상이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가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많고 다양한 작품을 짓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탁월한 문예적 재능과 감수성을 타고나서 그런 역량이 자연스럽게 시로 발휘된 결과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시 학문이 가문과 학과별로 교조화되어 가는 전반적 추세 속에서 문자시비의 가능성이 높은 학설의 피력보다 오히려 개인 정서에 충실한 시적 표현 양식을 더 선호했던 결과일 수도 있다. 특히 그가 19세기 초반부터 부단히 확대 재생산되어 온 屏虎是非의 폐해를 몸소 체험하며 생활하였던 사정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종 12년(1875) 대원군의 還宮을 요청하는 상소의 疏首를 맡았다가 10여 년간 吉州와 平海에서 유배생활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전에는 그 역시 평범한 學人の 삶을 살았다. 젊은 시절에는 학문

40구(문집1), 「輓止庵金丈」 5언 20구(문집2), 「輓族弟至叟」 5언 60구(문집2), 「歲除日敬次退陶先生…」 5언 12구(문집2), 「贈洪上舍而受」 5언 24구(문집2), 「輓趙謙仲」 5언 28구(문집3), 「壬申正月十七日夜夢…」 7언 100구(속집2), 「謹次集中韻述懷共賦」 5언 30구(속집2), 「輓族曾祖」 5언 18구 등이 그런 작품이다.

43) 「間中諸詠效雜體」 3수(문집1), 「效菩薩蠻體」(문집2), 「間中諸詠效雜體」 5수(속집2) 등이 그런 작품이다.

44) 7언 6행으로 지은 「爲地主所携復遊七寶山」(속집2)이 그런 작품이다.

45) 金魯善 시축의 八音體에 차운한 「次金奇溪子唯軸中八音體」(문집1)가 그런 작품이다.

을 탐색하면서도 정치적 포부를 펴기 위해 과거시험을 준비하였고, 이 일이 여의치 않자 閩山亭을 지어 재야 학자의 삶을 지향하였으며, 시를 즐겨 짓기는 하였지만 특별히 드러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56세 때 吉州로 유배를 떠나면서 특히 많은 시를 짓기 시작하여 평생 지은 작품의 절반 이상을 약 10년간의 유배기간에 창작하였다. 유배의 시련이 그에게 중요한 창작 동인으로 작용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의 문집에 수록된 시의 창작 시기를 검토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그의 문집은 대략 창작연대 순으로 시를 정리하여, 권1과 권2 앞부분에는 유배 이전의 작품, 그 다음에는 길주와 평해 유배시절의 작품, 권3 제일 뒷부분에는 解配 이후의 작품을 수록해 놓았다. 속집은 수록 순서가 다소 복잡하여 권1 앞부분에 유배이전, 중간부분에 유배시절, 끝부분에 해배 이후의 작품을 수록하였고, 권2는 다시 앞부분에 유배이전, 중간 이후에 길주 유배시절 작품을 수록하였으며, 권3은 모두 평해 유배시절 작품을 수록해 놓았는데, 그 내역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유배이전 (56세 이전)	유배시절 (56~65세)	해배이후 (66~70세)	전 체
문집1	57제 158수			57제 158수
문집2	27제 47수	97제 154수		124제 201수
문집3		51제 93수	41제 90수	92제 183수
속집1	20제 47수	41제 55수	28제 50수	89제 152수
속집2	68제 135수	77제 114수		145제 249수
속집3		107제 128수		107제 128수
총계	172제 388수	373제 544수	69제 140수	614제 1071수

〈표 5〉 민산 시의 창작 시기별 현황

문집1 : 述懷次晦齋先生부터 輓金丈까지 57제158수. 유배이전

문집2 : 輓止庵金丈부터 輓都正丁丈까지 27제 47수. 유배이전

- 문집2 : 乙亥正月望부터 登吉雄南門까지 12제 13수. 길주도중
 문집2 : 雄城館東廳부터 輓可潤李丈까지 49제 85수. 길주유배
 문집2 : 東移道中口占부터 總吟까지 14제 22수. 평해도중
 문집2 : 雨中吟一絶부터 夜聞海聲까지 22제 34수. 평해유배
 문집3 : 九九同金平부터 族弟賢民까지 6제 6수. 평해유배
 문집3 : 春日栽菊부터 臨行答湖隱까지 2제 2수. 귀향도중
 문집3 : 歸路追述부터 次湖隱贈行까지 43제 85수. 평해유배(2차)
 문집3 : 次大來啐宴부터 輓權仲車까지 41제 90수. 귀향이후
 속집1 : 敬次山堂病起부터 豫讓까지 20제 47수. 유배이전
 속집1 : 次白沙三物吟부터 又次土亭까지 7제 11수. 길주유배
 속집1 : 臺下權極彦부터 次黃大汝까지 34제 44수. 평해유배(2차)
 속집1 : 夜坐偶吟부터 贈李寢郎까지 28제 50수. 귀향이후
 속집2 : 輓李丈부터 輓素無軒琴姑叔까지 68제 135수. 유배이전(?)
 속집2 : 三月十四日부터 到威關嶺까지 3제 3수. 길주도중
 속집2 : 聞灘聲憶南鄉부터 聞平地까지 74제 111수. 길주유배
 속집3 : 寒暄一蠶부터 葛庵玉川까지 2제 2수. 길주유배
 속집3 : 叢石亭부터 登望洋亭舊址까지 6제 7수. 평해도중
 속집3 : 和尹基魯부터 次聽澗亭까지 57제 72수. 평해유배
 속집3 : 還鄉道中부터 輓金戚叔까지 8제 12수. 귀향도중
 속집3 : 臘末雨夜부터 月夜登望鶴樓까지 34제 35수. 평해유배(2차)46)

위의 <표 5>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그가 유배 이전에 지은 작품은 문집

46) 위에 제시한 창작 시기별 현황 파악은 정확성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창작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작품이 많아서 불가피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명 지명 물명 및 앞뒤 작품 배열의 상호관계 등을 참작하여 추정된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집과 속집에 수록된 작품이 서로 중복된 예가 더러 있었는데, 이런 사항도 작품 수 계산에 일일이 다 반영하지 못하였다. 속집1의 輓金佑伯 제1~2수(문집2 수록), 輓金聖源(문집3 수록), 輓權仲車 제2~3수(문집3 수록), 속집2의 輓金上舍戚叔 제1~3수(문집1 수록), 除夕爲來會僉賢共賦 제2수(문집2 수록), 生朝有感用除夕韻以賦(문집2 수록) 別後不勝勞勞(문집2 別崔畫南由歸와 동일), 속집3의 槐陰(문집3 수록) 등이 그런 작품이다. 그러나 이런 점을 두루 감안한다 할지라도 시기별 작품 창작의 개략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과 속집에 수록된 작품을 모두 합하여 약 388수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에 반해 56세 때 유배를 떠난 이후 길주에서의 유배시절, 길주에서 평해로 移配되는 도중, 평해에서의 유배시절, 解配되어 귀향하는 도중, 평해에서의 2차 유배시절 등 약 10년 남짓한 유배기간에 지은 작품은 544수로, 유배 이전에 지은 작품 전체의 1.5배, 그가 평생 지은 작품의 절반 이상에 달할 정도였다. 그에게 있어서 유배 체험이 특별히 많은 작품을 창작하게 된 대단히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유도수의 한시는 크게 유배 이전과 유배 이후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유배 이전의 경우 그는 여느 학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창작 활동을 하였다. 여러 편의 연작시를 즐겨 짓기도 하고, 장편고시와 詞 八音體 등 특이한 작품양식을 실험하면서 남다른 문예 취향을 드러내기는 하였지만, 가장 중심적인 창작 내용은 여전히 재야 학자로 살아가는 생활서정 그 자체였다.

이 시기에 지은 작품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선배 학자들이 그들의 학문적 터전과 학자적 삶의 서정을 읊은 雜詠詩를 주목하고 여기에 차운한 시를 다수 지은 것이다. 이언적의 「林居十五詠」을 비롯하여, 이황의 「山居四時」, 유성룡의 「江齋十詠」, 龍溪公의 「龍溪十詠」, 柳宇睦의 「竹林精舍」 등에 차운하여 지은 각종 연작 잡영시들이 바로 그런 것이며, 이런 창작 경험을 활용하여 자신의 학문적 터전이었던 閩山亭을 대상으로 스스로 「閩山亭諸詠」 15수를 따로 짓기도 하였다.

제 목	형 식	내 용	출 전
敬次林居雜詠	7절 13수	이언적의 林居十五詠 차운	문집1
伏次退陶先生山居四時	7절 16수	이 황의 山居四時 차운	문집1
伏次西厓先生江齋十詠	5율 10수	유성룡의 江齋十詠 차운	문집1
閩山亭諸詠	5절 15수	자신의 閩山亭을 읊음 시	문집1
敬次龍溪十詠韻奉呈…	7절 10수	龍溪公의 龍溪十詠 차운	속집1
謹次族叔竹林精舍韻	7절 8수 7율 1수	柳宇睦의 竹林精舍詩 차운 도합 9수	속집1

〈표 5〉 유배 이전에 창작한 雜詠詩

위의 〈표 5〉에 잘 드러나듯이 이때 지은 雜詠詩는 전체가 6종 73수에 달할 정도로 작품 수가 많다. 그가 유배 이전에 지은 작품은 대략 380수 가량 되는데, 이 중 다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한 의례적인 輓詩 197수를 제외하면, 나머지 작품의 거의 절반 정도가 이런 雜詠詩였던 셈이다.

선배 학자들의 시에 차운한 작품은 이런 잡영시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金安國의 「小學」시에 차운하여 소학의 중요성과 김안국의 공로를 칭송하기도 하였고,⁴⁷⁾ 이언적이 과거시험을 보러갈 때(1514) 지었던 「西征」시에 차운하여 5언 172구에 달하는 장편 고시를 짓기도 하였으며,⁴⁸⁾ 이황의 「石峯寺感秋」, 「總論書院」, 「四時幽居好」, 「行視陶山南洞」 등에 차운한 여러 편의 시를 짓기도 하였고,⁴⁹⁾ 스승 溪堂의 문집을 편찬하면서 그 문집에 수록된 작품에 차운시를 짓기도 하였다.⁵⁰⁾ 당시 그의 창작 활동이 선배 학자들의 시를 음미하고 반추하는 이런 학자적 삶의 연장선상에 있었음을 잘 드러내는

47) 『閩山集』, 권1, 「敬次慕齋先生小學韻」.

48) 『閩山集』, 권1, 「述懷次晦齋先生西征韻」.

49) 「歲除日敬次退陶先生」(문1), 「自花川埋板而歸讀退溪…」(속2), 「伏次退陶先生四時幽…」(속2), 「閩山得址後伏次老先生…」 5언 46구(문1) 등이다.

50) 「淨水庵與諸益菴集師門遺文」 7율 1수(속2)와 「謹次集中韻述懷共賦」 5언 30구(속2)가 그런 작품이다. 이 외에도 그는 계당과 관련하여 「溪堂感吟」 7절 1수(문1), 「六月小晦夜夢拜先生」 7절 3수(문1), 「溪堂秋日賦卽事」 7율 1수(문1), 「次愚川居然齋韻」 7율 1수(문2), 「次愚川講會韻」 7율 1수(속2) 등을 짓기도 하였다.

것이다.

이 시기에 지은 작품 가운데는 학자적 삶과 직결시키기 어려운 일상적 작품도 적지 않다. 회갑이나 급제 등을 축하하고 또 자제를 격려하거나 경계하는 시,⁵¹⁾ 벗들과 만나고 헤어지는 마음을 읊은 시⁵²⁾ 등이 그런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학자적 삶과 연계시킬 수 있는 작품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민산정에 터를 잡는 과정과 그곳에서 생활하는 마음,⁵³⁾ 「自警五絶」과 같은 자기 성찰적 작품⁵⁴⁾ 등이 다 그런 것이다. 따라서 유배 이전 그의 작품은 민산정을 중심으로 한 학자적 생활서정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이 선배 학자들의 雜詠詩를 비롯한 다양한 작품에 대한 차운시와 자기 성찰적 작품의 창작 등으로 실현되었다고 할 만하다.

그런데 吉州로 유배를 떠난 이후에는 이런 창작 경향에 상당한 변화가 야기되었다. 이 시절에도 다른 사람의 시에 차운한 시를 많이 지었다. 그러나 차운의 대상이 전혀 달랐다. 이언적 이황 유성룡 같은 선배 학자들의 雜詠詩는 더 이상 차운 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자신과 비슷한 유배 경험을 한 李恒福의 유배 시절 작품과 韓澤奎, 韓茶玉, 元錫五 등 현지 문인이나 수령의 작품이 더 중요한 차운 대상이었다. 이항복이 北靑으로 유배를 떠날 때 枉尋驛, 忘憂嶺, 龍潭店 등에서 지은 작품이 모두 차운 대상이었고, 시조 「鐵嶺歌」와

51) 「次塔窩李丈重牢韻」(문1), 「從侄尙榮冠示三絶」(문1), 「示兒」(문1), 「謹次族祖豐安君延諡韻」(문2), 「追和都正族祖重牢韻」(문2), 「敬次洛坡相公慶壽宴韻」(속1), 「南上舍丈壽席次呈胤兄」(속2), 「李東尹大人重牢宴韻」(속2), 「敬次南護軍宴席韻」(속2), 「長陰令公自謫所放還」(속2) 같은 작품이 그런 것이다.

52) 「贈申養直」(문2), 「憶丁輝謙」(속1), 「雨後臨別吟示善汝茹卿」(속2), 「次西湖歲寒帖韻以寓阻懷」(속2) 등이 그런 작품이다.

53) 민산정과 관련 작품은 「與申養直遊闕山新址」 7절 2수(문1), 「闕山得址後伏次老先生…」 5언 46구(문1), 「秋日山亭」 5절 1수(문1), 「秋日偶吟」 7절 2수(문1), 「投宿山齋朝見雪花着樹」 7절 1수(속2) 등이 대표적이다.

54) 자기성찰적 시는 「自警五絶」 7절 5수(속2)를 비롯하여 「夜中風雨獨坐」 7절 1수(문1), 「獨坐偶吟」 7절 1수(속2), 「壬申正月十七日夜夢…」 7언 100구(속2), 「偶吟深自傷痛」 7절 1수(속2) 등이 대표적이다.

「踰鐵嶺」이란 시가 모두 화차운 대상이었으며, 이항복의 유배 기록인 『北遷錄』에 수록된 시도 여러 편 차운 대상이 되었다.⁵⁵⁾ 그리고 吉州에서는 韓澤奎, 韓茶玉의 시에 많은 和次韻詩를 지었고, 평해에서는 元錫五와 주고받은 시가 많은데, 한택규 한 사람에게 화차운한 시만 대략 36수에 이를 정도이다.⁵⁶⁾ 학문의 터전을 벗어나 고단한 유배객으로 살아가면서 학자적 삶의 여유로움보다 절박한 유배생활의 진실성이 훨씬 더 마음에 와 닿고, 그것이 시적 역량으로 승화된 결과일 것이다.

당연한 귀결이겠지만 이 시기 그의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진 정서는 유배의 한과 외로움, 절절한 귀향의 정서, 유배지를 찾아온 사람들과의 만남과 작별의 애환 등이었다. 길주 유배초기에는 그래도 명신들의 奏議를 열람하고, 大學圖를 작성하며, 『北遷芹曝錄』을 짓는 등 학문에 대한 희망과 열정을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그런데 바로 이듬해(고종 13년, 1876) 큰 아들 宇榮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다시 그 해에 정치적으로 깊이 의지해 온 洛坡 柳厚祚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희망을 크게 상실하였다. 그래서 이때부터 심후한 학문적 탐색이나 저술보다 소박한 일상 정서에 충실한 시를 더 즐겨 지었고, 유배지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고달픈 심사와 각종 이색적 체험 내용을 시로 승화시키며 마치 시인과 같이 생활하였던 것이다.

55) 이항복의 유배 관련 작품에 차운한 시는 「次白沙李先生枉尋驛」(문2), 「又次白沙忘憂嶺韻」(문2), 「鐵原龍潭店次白沙送…」(문2), 「和白沙鐵嶺歌賦咸關嶺」(문2), 「次白沙踰鐵嶺韻」(문2), 「到北靑念白沙故事」(문2), 「次白沙三物吟」(속1), 「三月十四日發議政府店」(속2), 「又次白沙答五峯詩韻」(속2), 「到咸關嶺次白沙韻」(속2), 「次白沙棄婦詩一絶」(속3) 등이다. 이 외에 金宏弼 鄭汝昌 李玄逸 趙德隣 등을 두고 읊은 「寒暄一蠹俱匪留鍾穩地」(속3), 「葛庵玉川相繼謫居鐘城」(속3) 같은 작품이 있는데, 모두 그들의 북방 유배를 회고하며 지은 작품이기는 하지만 차운한 시는 아니다.

56) 한택규에게 화차운한 시는 문집2에 수록된 「次韓淵舍聚五省墓韻」, 「次贈淵舍」, 「和淵舍」, 「和淵舍夜合花韻」, 「和淵舍」, 「正陽樓吟示淵舍霞塢」와 속집2에 수록된 「和韓淵舍」, 「和淵舍」, 「泥行口占以示淵舍」, 「和淵舍時事吟」, 「九日和淵舍」, 「又」 속집3에 수록된 「寄韓淵舍諸友」 등 약 36수이다.

그래서 유배시절에 지은 시는 자연스럽게 이런 유배생활의 한과 귀향의 정서를 읊은 작품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돌아가신 어머니나 조부의 제삿날, 자신의 생일, 단오절, 중양절 등 의미 있는 날에는 어김없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귀향의 한을 시로 읊었고, 해가 바뀌거나 계절이 바뀔 때, 비가 오거나 날씨의 변화가 있을 때, 국화가 피고 감이 익어 가는 자연현상을 바라보며, 귀뚜라미 소리를 듣고, 다듬이질 소리를 듣고, 기러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심지어 시냇물이 흘러가는 소리를 듣고도 이런 쓸쓸한 마음과 망향의 정혼을 담아내었다.⁵⁷⁾ 기타 현지 문인들과 어울리거나 유배지로 찾아온 사람들과 만나고 작별할 때 지은 많은 시가 이리함은 다시 더 말할 필요도 없다.

하나 더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은 그가 유배시절에 名勝地를 유람하면서 많은 작품을 지었다는 점이다. 유배 이전의 경우에는 이런 시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죽절 柳芝榮과 함께 西岳寺에 유람할 때 지었다는 칠언율시 1수(가⁵⁸⁾) 발견될 따름이다. 그런데 그는 吉州 유배지에서는 물론이고, 길주에서 平海로 移配되는 도중, 平海에서 1, 2차 유배생활을 하는 동안 이런 작품을 대단히 많이 지었는데, 관련되는 작품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길주 유배지에서 지은 작품(43수)

七寶山諸詠(문2) 7절 14수 7월 2수 5월 1수, 七寶山諸詠 7절 17수 7월 3수(속2), 乙亥九月余遊七寶山 7절 2수(문2), 茶玉命石工刻名金剛窟 7절(문2) 樂民樓次板上韻 7절 2수(문2), 登吉雄南門百勝樓5월(문2)

57) 「先慈忌日情私罔極偶成」(문2), 「祖考忌日感吟一絶」(속2), 「生朝有感賦前韻」(문2), 「端陽日見男女上山祭墓」(속2), 「重陽日與基魯分韻」(속3), 「除夕爲來會僉賢共賦」(문2), 「除夕同元令酌酒」(속3), 「秋夜偶吟」(문2), 「霽後獨坐」(문2), 「雨中獨坐」(속3), 「見柿實感吟」(속3), 「採菊感吟」(속3), 「聞蛩音」(문2), 「秋夜聞砧」(속3), 「聞歸鴈有感」(속3), 「問南鴈早歸」(속3), 「鴈答」(속3), 「聞灘聲憶南鄉」(속2) 등이 대표적이다.

58) 『蘭山集』, 권2, 「與族姪花山伯仲雍遊西岳寺」.

■ 길주에서 평해로 이배될 때 작품(35수)

過樂民樓 5절 2수(문2), 金剛山楡岾寺山影樓 7절 2수(문2), 三日浦 7절 2수(문2), 詠月樓 7절 2수(문2), 鏡浦臺奉審肅廟御製詩 7절(문2), 攜聲仲登竹西樓 7절(문2), 次車滄洲韻 7율 3수(문2), 攜聲仲登萬里島 7절(문2), 月松亭敬次肅廟御製 7절(문2), 與海上詩友又吟三絕 7절 3수(문2 월송정), 叢石亭次金沖庵韻 7율(속1), 泛舟叢石下欲向 5율(속1), 仙遊潭 7절(속1), 永郎湖 7절(속1), 淸澗亭 7절(속1), 洛山寺 5율(속1), 凌波臺 7절(속1), 寶岩 7절(속1), 望洋亭 7율(속1), 越松亭 7율(속1), 叢石亭次板上韻 7율(속3), 過金剛山巖譚之下不敢 7절(속3), 登淸澗亭 5절(속3), 登洛山寺觀音窟 7절 2수(속3), 携登六香臺 7절(속3), 登望洋亭舊址 7절(속3)

■ 평해 유배지에서 지은 작품(8수)

與瀛州諸益登觀魚臺 7율(속1), 觀魚臺 7율(속1), 題黃學士祭壇 7절(속3), 太和樓避暑共賦 7율(속3), 登月松亭吟示金上舍韻 7율(속3), 八仙臺卽景 7율(속3), 望日同元令登望鶴樓 7율(속3), 既望月夜又登鶴樓 7율(속3)

위에 제시한 사항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는 길주에서 七寶山을 유람하면서 약 40여 수의 시를 지었고, 길주에서 평해로 이배되는 도중 금강산과 關東八景을 지나치면서 다시 약 35수의 작품을 지었으며, 평해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도 觀魚臺, 月松亭, 八仙臺 등 명승지를 둘러보고 여러 작품을 지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이 대략 85수 가량 파악되는데, 이것은 그가 관행적으로 창작한 輓詩와 유배의 정한을 읊은 작품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것이다.

그가 이처럼 많고 다양한 명승 탐방의 시를 짓게 된 것은 유배생활을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마주치게 된 이런 명승경관이 대단히 경이롭고 아름답게 느껴졌던 탓도 있겠지만, 이런 아름다운 경관을 가슴에 담아 작품으로 승화 시킴으로써 유배생활의 한과 적적함을 잠시라도 해소하고자 했던 노력의 결과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塞北關東賦遠遊 길주에서 평해까지 먼 길에 글을 지어,
 風光到底肺腸收 풍광을 도저하게 가슴 속에 담았었네.
 間來披閱行程記 한가해져 그 길에 지었던 글 읽어보니,
 終是詩歌太半愁 시와 노래의 태반이 끝내 근심이구려.⁵⁹⁾

李公弼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次贈李錦樵公弼」이란 작품이다. 이 시에서 그는 길주에서 평해로 이배되면서 관동지역의 아름다운 각종 풍광을 가슴에 담아 시를 지었는데, 이제 조금 한가하여 그 때 지었던 글을 읽어보니 시와 노래의 태반이 여전히 근심일 뿐이라고 하였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답답한 가슴을 씻어보려 했지만 여전히 그 근심이 작품 속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유배 이후 유도수는 더 이상 학문을 탐색하고 저작에 몰두하는 학자의 삶을 고수하지 않았다. 선배 학자들의 시보다 북방에서 비슷한 유배 경험을 한 이항복의 시를 즐겨 읽고 차운하였고, 현지의 문인과 찾아오는 지인들과 어울리면서 유배의 한과 귀향의 정한을 진솔하게 시로 표현하였으며, 관동지역의 이색적인 풍광과 명승지를 주요 창작 대상으로 삼아 직적한 심사를 달래고자 하였다. 굳센 학자의 삶보다 진솔한 시인의 삶을 지향하였던 것이다. 그가 19세기 영남지역의 학자들 가운데 남달리 많은 시를 지었던 것을 바로 이런 독특한 유배 체험과 삶의 자세에서 연유하였다고 할만하다.

4. 마무리

본고는 19세기 중엽 영남 중·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계당 유주목과 민산 유도수의 한시 창작 경향을 개략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이들

59) 『閩山集』, 續集, 권3, 「次贈李錦樵公弼」.

이 비슷한 시기에 가까운 지역에서 함께 활동한 학자이고 학연이나 혈연으로 깊이 연계된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창작 실상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주목은 평생 재야 학자로 살았다. 그래서 가장 큰 관심사가 강학과 저술이었고, 그 다음이 각종 문장의 작성이었으며, 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매우 낮았다. 전체 작품이 도합 84제 93수로, 문집의 3%, 저술의 0.3%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시종일관 주자학의 일반적 문학이론인 文以載道論을 견지하였고, 여기에 근거하여 표현이 아름다운 시보다 性情이 자연스럽게 발현된 시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를 자신의 작품 창작과 남의 작품 평가에 중요한 척도로 활용하였다.

유주목이 남긴 한시는 바로 이런 관점의 현실적 실천 결과였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가장 정제된 근체시 특히 율시를 즐겨 지었고, 실험적 잡체시나 장단구는 거의 시도하지 않았다. 제재에 있어서도 知人の 죽음을 애도한 挽詩를 가장 많이 지었고, 만남과 이별의 감회, 동학들에 대한 격려와 경계, 독서와 학문 탐색의 감흥 등등 재야 학자로 살아가는 담담한 일상적 생활 서정이 중심적 자리에 있었다. 그야말로 ‘性情이 발현된 시’, ‘道理가 드러난 우아한 시’를 지향하였던 것이다.

유도수도 유주목의 학통을 계승하였던 만큼 기본적인 삶의 태도나 학문성향 및 문학에 대한 생각 등에 있어서는 스승과 유사한 면이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 작품 실상에서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저작의 총량은 유주목의 1/10에 불과하면서도 시는 그 보다 10배 이상 많이 지었고, 작품의 절반 이상이 연작시일 만큼 시에 남다른 재능을 과시하였으며, 장편고시와 詞 팔음체 소율시 등을 다채롭게 창작하여, 시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당시 학자들의 일반적 수준을 훨씬 능가하였던 것이다.

유도수가 이렇게 남달리 많고 다양한 시를 남길 수 있었던 데는 유배의

경험이 특히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유배 이전에는 그 역시 선배 학자의 시를 차운하고 자신의 삶을 반추하는 등 학자적 삶의 연장선상에서 시를 지었다. 그런데 56세 때 유배를 떠난 이후 약 10년에 걸쳐 이전에 지은 작품의 1.5배, 평생 지은 작품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많은 작품을 지었다. 그리고 선배 학자들의 시보다 이항복의 유배 관련 시를 즐겨 차운하고, 학문 탐색의 여유보다 유배의 한과 귀향의 정서를 핵심 제재로 삼았으며, 유배지 주변의 이색적 명승경관을 주요 창작 대상으로 수용하였다. 완고한 학자적 삶보다 진솔한 시인의 삶을 지향함으로써 놀라운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유주목의 한시 창작은 동시대에 활동한 영남지역 주요 학자들과 비슷한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별히 놀라운 점이 없었다. 그러나 유도수의 경우는 이런 일반적 경향성을 벗어난 사례로 특별히 주목할 가치가 있었다. 그동안 영남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새로운 창작 경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도수가 성취한 한시세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천착이 필요할 듯하며, 이를 통해 19세기 영남지역 한문단의 실제 상황을 보다 충실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柳道洙, 『閩山文集』, 대보사, 1996.
柳疇睦, 『溪堂全書』, 아세아문화사, 1984.
柳厚祚, 『洛坡先生文集』, 대보사, 1995.
朱 熹, 『御纂朱子全書』, 商務印書館, 1990.
柳時碧, 「閩山文集後識」, 『閩山文集』, 대보사, 1996.
柳時中, 『愚川과 先賢』, 豊山柳氏愚川花樹會, 1999.
李佑成, 「溪堂全書解題」, 『溪堂全書』, 아세아문화사, 1984.
黃渭周, 「四末軒 張福樞의 漢詩世界」, 『어문논총』 47호, 2007.

Abstract

Gyedang(溪堂) and Minsan(閩山),
Their Writing Activities for Chinese Poem Composition

Hwang, Wee-Zoo

Both Gyedang(溪堂) Yu Ju-mok(柳疇睦) and Minsan(閩山) Yu Do-su(柳道洙) are the members of Pungsan(豐山) Yu(柳) family. They, being the exponents of their families at the zenith of their families, led the opinion of intellectual society of Yeongnam province in the mid-nineteenth century. However, they showed many differences in Chinese poem composition. Yu Ju-mok had remained as a scholar out of office all his life. His matters of primary concern were giving lecture and writing activity then the next concern was the composition of sentence that were necessary for daily life. So, Chinese poems took up very small portion from his all writings. Yu Ju-mok's such writing behavior of Chinese poem composition had the same way of writing with the common scholars of Yeongnam province in the late Joseon.

On the other hand, Yu Do-su showed greatly different aspect with Yu Ju-mok. Chinese poems took up the biggest portion in his all writings. He revealed so excellent ability in poem that more than half of his Chinese poems were through-composed poems. Particularly, after ten or more years' exile life from his age 56, he pursued honest poetic life rather than stubborn scholarly life, so that he got significant results in both quality and quantity. Yu Do-su's Chinese poem composing activity was deviated from the common trend of Yeongnam province scholars. It seemed that his writings could greatly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overall aspects of Chinese poem composition of Yeongnam province intellectual society in the mid-nineteenth century.

Key Word

Yu Ju-mok(柳誦陸), Yu Do-su(柳道洙), Yeongnam province(嶺南地域), Chinese poem (漢詩), Writing trend, Nineteenth century

- 논문투고일 : 2008.11.15. 심사시작일 : 2008.11.20. 심사완료일 : 2008.11.28.